

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 모두 지난해 계획 대비 개선되었으며, 재정통계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

<보도내용>

- 2026.9.6. 연합뉴스 등은 「2030년 적자성 채무 1천300조대 … 나랏빚 이자비용 50조 넘어」 기사에서,
 - “2030년 적자성 채무가 1,300조원, 이자비용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,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적자성 채무 전망을 공개하지 않았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 모두 지난해 계획 대비 개선*되었으며,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자성·금융성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중입니다.

* '29년 적자성 채무 전망: (종전) 1,362.5조(76.2%) → (이번) 1,245.8조(75.1%)(△116.7조 △1.1%p)

< '25~'29 국가재정운용계획 - '26~'30 국가재정운용계획 적자성 채무 비교>

구분	26년	27년	28년	29년	30년
25~29년 계획(A)(비중) (조원, %)	1,029.5 (72.7)	1,133.0 (73.9)	1,248.1 (75.0)	1,362.5 (76.2)	-
26~30년 계획(B)(비중) (조원, %)	1,025.2 (72.6)	1,117.1 (73.5)	1,192.4 (74.5)	1,245.8 (75.1)	1,312.3 (75.7)
규모(비중) 증감(B-A) (조원)	△4.3 (△0.1)	△15.9 (△0.4)	△55.7 (△0.5)	△116.7 (△1.1)	-

- 이자지출은 절대지출금액이 아닌 재정규모(GDP) 대비 비중으로 보아야 하며, 이자지출 비율*과 증가폭** 모두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.

* 총지출 대비 이자지출('25 결산): [韓] 4.6%(31.7조/684.1조) < [日] 9.2% < [美] 13.8%

** 재정수입 대비 이자지출('25): [韓] 5% < [日] 12.2% < [美] 18.7%

<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이자지출 비중 전망(gdp%, OECD, 26.6월 기준) >

구분	'23(A)	'24	'25	'26	'27(B)	증가폭(%p) (B-A)
미국	4.38	4.77	4.72	4.73	4.99	+0.61
일본	1.20	1.23	1.34	1.71	2.22	+1.02
프랑스	1.89	2.06	2.23	2.44	2.68	+0.79
독일	0.87	1.06	1.11	1.17	1.30	+0.43
한국	1.26	1.38	1.32	1.34	1.50	+0.24
영국	3.17	2.88	3.28	3.33	3.43	+0.26

- 금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재정의 국제비교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정부부채(D2) 국제비교 상세자료, 이자비용 국제비교 자료 및 이자비용 전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.

- 적자성 채무 관련 사항은 국제비교 중심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 구성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입니다.
- 또한, 적자성 채무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 통계는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(www.openfiscaldata.go.kr)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

- 앞으로도 정부는 적자성 채무 등을 포함한 재정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찬익 (jky820@korea.kr)